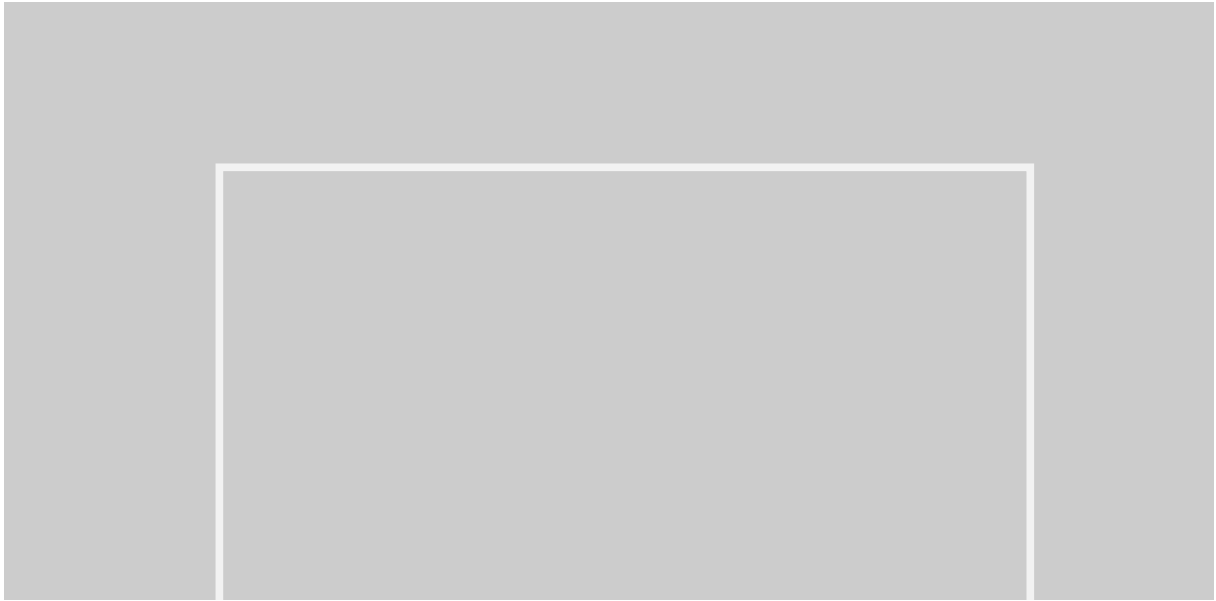

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

2022. 12. 22.

농림축산식품부

순서

[요 약]	i
I. 추진배경	1
II. 국내 식량안보 여건 분석	2
III. 최근 식량자급률 추이	4
IV. 기본방향 및 주요 추진과제	5
1. 국내 기초 식량작물 생산 확대	7
2. 농업진흥지역 중심 농지 관리 체계화	8
3. 국내 식량작물 비축 확대 및 新수요 창출	9
4. 민간 기업의 해외 공급망 확보 지원	10
5.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국가 간 협력체계 구축	11
첨부: 부처별 세부 이행과제	12



요약



1 추진 배경

- 기후변화·코로나19 및 러시아-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라 식량 보호주의 경향이 심화되면서 식량안보에 대한 관심과 우려 고조
 - 특히, 러-우 사태 발생 이후 주요국간 정치·경제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식량안보 문제는 향후 상시화된 구조적 리스크가 될 가능성
- 우리나라는 농지면적이 협소하고, 쌀을 제외한 밀·콩·옥수수 등의 주요 곡물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
 - * 국토면적 대비 농지면적('21, %) : (한국) 15.4, (일본) 11.6, (독일) 33.2, (프랑스) 34.5
↳ 연도별 추이 : ('02) 18.7% → ('07) 17.9 → ('12) 17.3 → ('17) 16.2 → ('21) 15.4
 - 농지는 지난 5년간 연평균 △1.2% 감소하였으며, 식량자급률은 국내 생산 감소 영향 등으로 지속 하락 추세
 - * 식량자급률 추이(%) : ('17)51.9 ('18)50.3 ('19)49.3 ('20)49.3 ('21)44.4 ('22p)47.7
- 국제곡물 가격도 공급 측면의 불안 요인이 지속됨에 따라 평년에 비해 높은 가격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
 - * (밀) 평년 대비 약 1.3배 상승, (대두) 1.4배, (옥수수) 1.6배 ('22.12월 기준)

2 기본방향 및 목표

◆ 다양한 외부 충격에도 주요 곡물의 수급 안정을 굳건히 할 수 있도록
① 식량자급률 상승 추세 전환 및 ② 안정적인 해외 공급망 확보 추진

- ① '27년까지 식량자급률 **전체 55.5%, 밀 8.0%, 콩 43.5%** 달성
 - * 식량자급률 목표('21→'27, %) : (전체) 44.4 → **55.5**, (밀) 1.1 → **8.0**, (콩) 23.7 → **43.5**
- ② 농지면적 감소추세를 완화*하여 적정 농지면적 유지('27년 150만ha 수준 유지 노력)
 - * 농지면적 감소 추세 : ('17~'21) 연평균 △1.2% → ('21~'27) 연평균 △0.5%
- ③ '27년까지 곡물 수입 중 국내 기업의 해외 유통망 활용 비중 **18%(300만톤)** 달성
 - * 해외 유통망 확보 목표 : ('22) 2 → ('27) 목표 5개소
국내 반입 목표 : ('21) 61(전체 곡물 수입의 3.5%) → ('27) 300만톤(18%)

3 주요 추진과제

◆ (국내) 생산 확대를 통해 식량자급률을 상승 추세로 전환

전략① [생산] 국내 기초 식량작물 생산 확대

① (생산 지원) 전문 생산단지 중심으로 대규모·집중 생산체계 구축

- 가루쌀·밀·콩 생산을 단계적으로 확대*하고, 재배 안정성 제고를 위해 표준 재배법 보급, 현장 컨설팅 지원, 건조·저장시설 확충 등 추진

* 전문 생산단지(천ha) : ('22) 가루쌀0.1 / 밀7 / 콩7 → ('27) 가루쌀42.1(~'26까지) / 밀21 / 콩14
목표 생산량(천톤) : ('22) 가루쌀0.5 / 밀34 / 콩120 → ('27) 가루쌀200(~'26까지) / 밀168 / 콩147

② (전략작물직불) 전략작물직불금*을 통해 농가 소득을 지원하여 가루쌀·밀·콩 등 주요 전략작물 생산에 참여하는 농가 확대 도모

* (지원내용/정부안) 동계(밀·조사료) 및 하계(콩·가루쌀) 작물 이모작 시 250만원/ha,
단작 생산 농가는 품목별로 50(밀·조사료)·100(논·콩·가루쌀)만원/ha 지급

③ (생산성 향상) 농업 분야 기후대응 컨트롤타워 구축*(~'26) 및 가뭄·홍수 등 자연재해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논·밭 기반정비 추진

*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를 설립(~'26)하여 농식품 분야 기후변화·탄소중립 등에 대응

- 스마트농업 활성화·기계화 지원 등을 통해 농업 생산성 향상

* '27년까지 농업생산의 30% 이상을 스마트농업으로 전환 추진

전략② [농지] 농업진흥지역 중심 농지 관리 체계화

① (농지 관리체계 구축) 식량자급률 목표 달성에 필요한 농지 보전 목표 설정 및 중앙·지자체의 기본계획·실천계획 수립 의무화('23)

② (농업진흥지역 관리체계 개선) 농업진흥지역 관리 체계화를 위해 도면·필지 정보 DB 구축 등 정보관리시스템 구축('23)

- 농업진흥지역 지정 기준을 논·밭으로 구분하여 조정('23)

- ③ (농지전용허가 제도 개선) 체계적인 농지 전용 심사를 위해 허가 권한 위임 범위 조정 및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체계 조정 검토('23)

전략③ **(비축·소비)** 국내 식량작물 비축 확대 및 新수요 창출

- ① (공공비축 확대) 위기 발생시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쌀·밀·콩 등 기초 식량작물에 대한 공공비축 확대

* 국산 밀/콩 비축 목표(천톤) : ('22) 17/25 → ('25) 30/45 → ('27) 50/55

- 국내 밀 생산 확대에 대응한 밀 전용비축시설 신규 설치 검토('23~)

- ② (소비기반 구축) 국산 가루쌀·밀·콩 수요처에 대해 계약재배, 원료 할인공급, 신제품 개발 지원 등을 통해 新수요 창출 추진

- 국산 가루쌀·밀을 활용한 신제품(제빵·제과) 개발을 위한 전 과정 지원 및 민·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소비활성화 등 추진

* 가루쌀 관련 예산: ('22) - → ('23안)71억원, 국산밀 관련 예산: ('22)242 → ('23안)403억원

- 푸드테크(Food-tech) 산업과 연계하여 국산 콩을 활용한 대체식품 생산 기업에 원료 확보·신제품 개발 등을 지원

- ③ (농식품 지원사업) 취약계층에 대한 기본적인 식품 공급을 위한 농식품 바우처, 정부 쌀 할인판매 등 농식품 지원사업 지속 추진

◆ (해외) 민간 지원 확대 및 국제협력 등 안정적 해외 공급망 확보

전략④ **(공급망 확보)** 민간 기업의 해외 공급망 확보 지원

- ① (자금 지원) 다양한 방식으로 민간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 지원 추진

- 해외곡물 유통망* 확보를 위한 저리융자 정부 지원(500억원 사업규모/이차보전)

* 곡물 엘리베이터 등 확보 지원('22, 2개소 → '27, 목표 5개소) 지원('23~)

-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농식품 펀드 신규 조성 도입 검토('24~)

- 안정적인 투자 자금 조달을 위하여 식량 확보를 위한 밸류체인 (value-chain) **전 과정에 대한 지원기반 구축**(수출입은행* 협조)

*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여 「글로벌 공급망 대응 프로그램」 신설('22~, 20조원 규모)

< 사례 : 국내 기업의 해외 곡물 엘리베이터 확보 >

- ▶ 곡물을 건조·저장·분류·운송하는 유통시설을 의미하며, 주로 곡물 주산지 또는 강·항만·철도 등 운송시설 인근에 위치
- ▶ 포스코는 우크라이나 곡물터미널 확보('19), 팬오션은 미국 EGT 곡물터미널 확보('20)



- ② (수입선 다변화) 주요 수입국 작황부진, 수출제한조치 등에 대비하여 민간 기업의 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지원방안* 검토('24~)

* 현지 사전조사, 수입 운송비, 국내 보관·저장, 가공 적합성 평가·제품개발 R&D 등

전략⑤ **(국제협력)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국가 간 협력체계 구축**

- ① (양자·다자협력 강화) 비상시 안정적인 식량(밀·콩) 확보를 위한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양자·다자간 협력체계 구축

- 주요 곡물 수출국과 식량위기 상황에서의 상호 협력체계 마련

* 남미 주요국과 식량안보 협약 체결 모색, 중남미 곡물 유통망 확보 협력 등

- 수입의존도가 높은 주요 품목(식용 밀 등)에 대하여 다자간 국제 공조체계를 기반*으로 위기 대응력 강화

* IPEF 참여를 통한 수출제한금지 논의 도출 및 아세안+3 비상 쌀 비축제 범위 밀까지 확대 등

- ② (국제농업협력) 공적개발원조(ODA) 등 농업 관련 기술·시설·장비 등 지원을 통해 신뢰관계 구축 및 비상시 협력체계 마련

* 대상국가(예시) : (밀)우크라이나, 세르비아, 카자흐스탄, 인도 등, (콩)브라질 등

- 민간의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 진출과 연계한 전략적 ODA 추진

* ODA 사업 규모 : ('22) 849 → ('23안) 917억원(12개국, 9개 국제기구, 47개 사업)

- 비상시 해외에서 확보한 곡물의 국내 반입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령 개정 추진(해외농업산림법 개정, '23)

* (현행) 비상시 반입명령 이행으로 인한 사업자 손실을 보상하는 근거 규정 미비
→ (개정) 사업자 손실보상 근거 규정 신설(해외농업산림법 제33조)

※ 주요 곡물 수출국 및 향후 곡물 시장 성장 가능성이 높은 국가 등과 비상시 안정적 식량 확보를 위한 장기 구상 마련('23~)

첨부

기본방향 및 주요 추진과제

비전

외부 충격에도 굳건한 식량안보 체계 구축

주요 목표

- ◇ '27년까지 식량자급률 **전체 55.5%, 밀 8.0%, 콩 43.5%** 달성
- ◇ '27년까지 곡물 수입 중 해외 유통망 활용 비중 **18%** 달성
- * 해외 유통망 확보 목표 : ('22) 2 → ('27) 목표 5개소
- 국내 반입 목표 : ('21) 61(전체 곡물 수입의 3.5%) → ('27) 300만톤(18%)

5대 전략 및 13개 중점 과제

국내 생산 확대

전략 ① 국내 기초 식량작물 생산 확대

- ① 전문 생산단지 중심 대규모·집중 생산체계 구축
- ② 전략작물직불금 신설을 통한 농가 소득 안전망 확충
- ③ 기후변화 대응, 스마트농업·기계화 지원 등 농업 생산성 향상

전략 ② 농업진흥지역 중심 농지 관리 체계화

- ① 농지 보전목표 설정 및 중장기 농지 관리체계 구축
- ② 농업진흥지역 관리체계 개선
- ③ 농지전용허가 제도 개선

전략 ③ 국내 비축 확대 및 新수요 창출

- ① 밀·콩·가루쌀 비축 확대 및 비축시설 신규 조성 검토
- ② 국내 식량작물 소비 확대를 위한 신수요 창출
- ③ 취약계층의 기본 먹거리 보장을 위한 지원 지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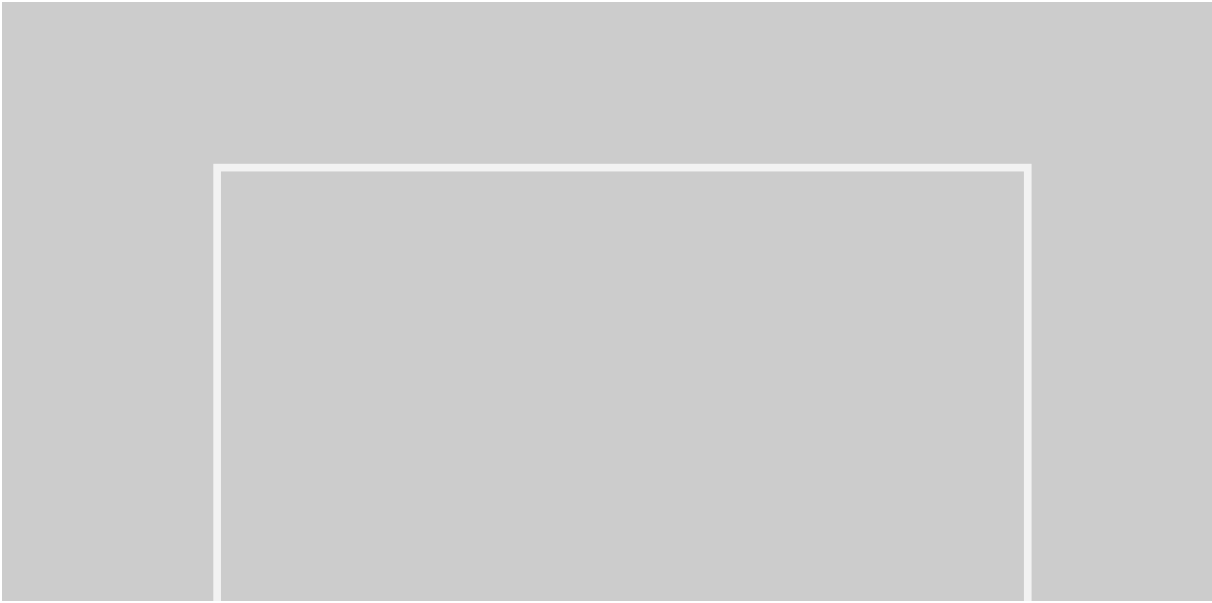
해외 공급 기반 확보

전략 ④ 민간 기업의 해외 공급망 확보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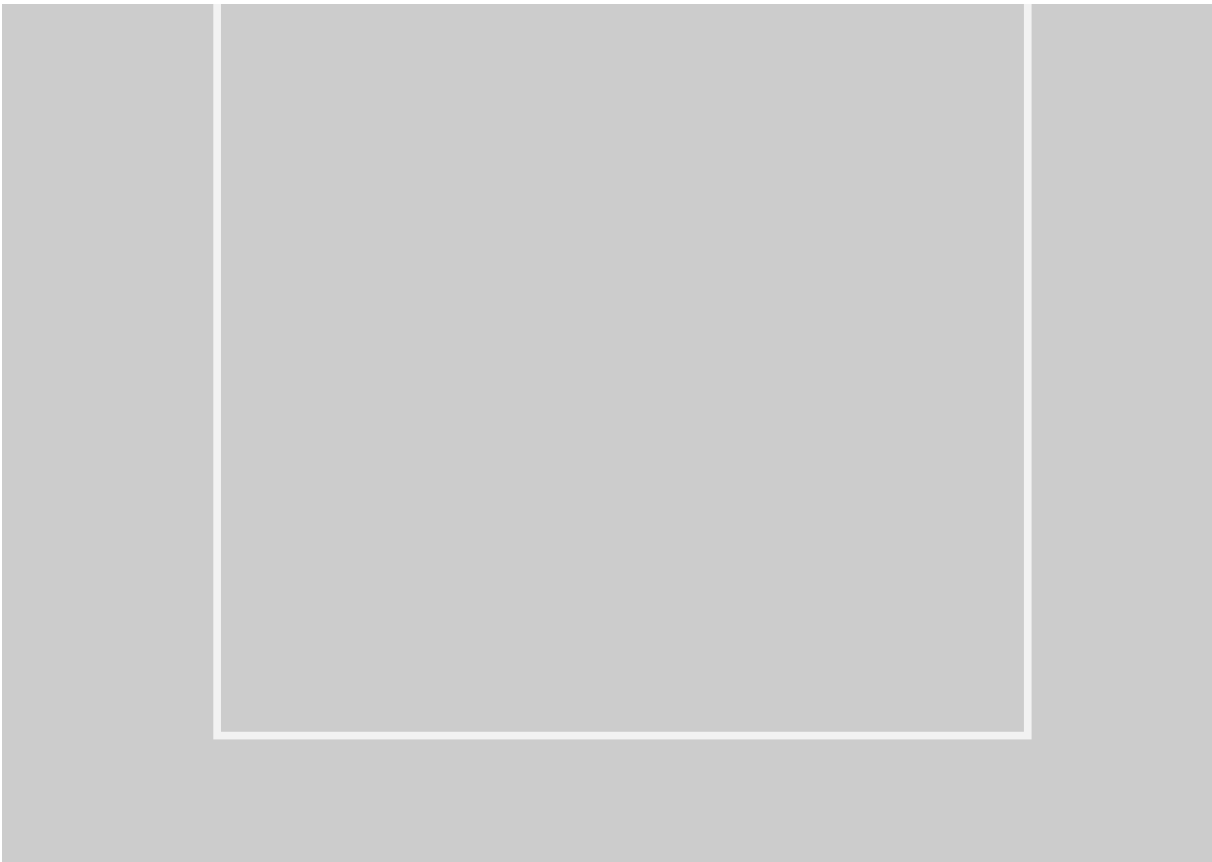
- ① 민간 기업의 해외 곡물 유통망 확보
- ② 선제적인 수입선 다변화 지원

전략 ⑤ 식량안보를 위한 국가 간 협력체계 구축

- ① 식량안보 관련 국제협력 강화
- ② 공적개발원조(ODA) 및 해외농업자원개발 확대



החל



I. 추진배경

- (동향) 기후변화·코로나19 및 러시아-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라 공급 측면 불안 요인이 심화되면서 식량안보에 대한 관심과 우려 고조
 - 특히, 러-우 사태 발생 이후 주요국간 정치·경제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식량안보 문제는 향후 상시화된 구조적 리스크가 될 가능성
- (국내) 우리나라는 농지면적이 협소하고, 쌀을 제외한 밀·콩·옥수수 등 주요 곡물을 대부분 수입하고 있으며, 식량자급률은 하락 추세
 - * 국토면적 대비 농지면적('21, %) : (한국) 15.4, (일본) 11.6, (독일) 33.2, (프랑스) 34.5
↳ 연도별 추이 : ('02) 18.7% → ('07) 17.9 → ('12) 17.3 → ('17) 16.2 → ('21) 15.4
 - 농지면적은 지난 5년간 연평균 △1.2% 감소하였으며, 상대적으로 논 면적이 더 빠르게 감소
 - * 논/밭 면적 변동 추이(만ha) : ('00) 논115 / 밭74 → ('10) 논98 / 밭73 → ('21) 논78 / 밭77
 - 식량자급률은 국내 생산 감소 영향 등으로 '80년대 이후 지속 하락 추세이며, '21년 기준 식량 자급률 44.4%, 곡물 자급률 20.9%를 기록
 - * 식량자급률 추이(%) : ('17)51.9 → ('18)50.3 → ('19)49.3 → ('20)49.3 → ('21)44.4
곡물자급률 추이(%) : ('17)25.6 → ('18)24.1 → ('19)23.3 → ('20)22.4 → ('21)20.9
- (해외) 국제곡물 가격은 우크라이나 사태(2월) 직후 대비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, 평년에 비해 높은 가격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
 - * 세계식량가격지수('14-'16=100) : ('22.1)135.6 ('22.3)159.7<고점> ('22.7)140.6 ('22.11)135.7
 - 기후변화, 국제정세 불안 등 공급 측면의 불안 요인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당분간 평년대비 가격 강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
 - * (밀) 평년 대비 약 1.3배 상승, (대두) 1.4배, (옥수수) 1.6배 ('22.12월 기준)

⇒ 앞으로의 5년('23~'27)은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자급률 제고 및 해외 공급망 확보를 중심으로 과거와는 차별화된 실질적인 정책수단 발굴 필요

* 국정72: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(기초식량 자급률 제고 및 글로벌 공급망 확보)

II. 국내 식량안보 여건 분석

- (곡물 수급 구조) 국내 연간 수요량 2,266만톤 중 472만톤(20.9%)은 국내 생산, 1,794만톤(80.1%)은 수입에 의존('21년 기준)
 - 식용 곡물(가공용 포함) 수요량은 989만톤(쌀·밀·콩 643만톤 등)이며, 이중 쌀·콩 등 472만톤은 국내 생산, 밀·옥수수 등 517만톤은 수입
 - * 식량 자급률('21, %) : 전체 44.4, 쌀 84.6, 밀 1.1, 콩 23.7, 옥수수 4.2 등
 - 사료용 곡물 수요량은 1,196만톤(옥수수 928만톤 등)이며, 대부분 수입
 - * 곡물 자급률('21, %) : 전체 20.9, 밀 0.7, 콩 5.9, 옥수수 0.8 등
- (생산) 밀·콩 생산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, 쌀 중심의 생산 구조 고착화
 - * 주요 품목 생산량(만톤) : (쌀) 376('22), (밀) 3.4('22), (콩) 12.0('22), (옥수수) 9.2('21)
 - 쌀의 경우 국내 수요 대비 충분한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며, 소비 감소 추세(연평균 약 $\Delta 2.2\%$) 감안시 구조적인 공급 과잉 우려
 - 다만, 밀·콩·옥수수 등의 생산은 수요 대비 부족한 상황
 - 특히, 밀의 경우 쌀 다음으로 1인당 소비량이 많음*에도 불구하고, 국내 소비량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
 - * 1인당 양곡 소비량(kg, '21년 기준) : (쌀) 56.9, (밀) **36.9**, (콩) 6.4, (옥수수) 3.6
- (농지) '21년 농지면적은 154.7만ha, 국토면적(1,004만ha)의 15.4% 차지
 - 우량농지가 집단화된 농업진흥지역은 77.4만ha, 농지의 50% 차지
 - * 농지면적 대비 농업진흥지역 비중 : ('02) 49.4% → ('17) 47.9% → ('21) 50.0%
 - 농지면적은 최근 20년('02~'21) 동안 총 31.6만ha가 감소하였으며, 이 중 대부분이 농지 전용(31.8만ha, 연평균 1.6만ha)으로 인한 감소임

□ (비축) 주요 식용 곡물(쌀·밀·콩 등)에 대해 정부에서 공공비축제도를 운영중이나, 사료용 곡물은 대부분 민간에서 재고로 보유

○ (정부) 쌀은 공공비축제도, 대두는 공공비축·국영무역을 통해 확보한 물량으로 일정 기간 대응 가능

- 다만, 밀은 공공비축 초기단계로 물량이 부족하여 위기시 대응에 한계

구분	쌀	밀	대두
공공비축 매입량('22)	45만톤	1.7만톤	2.5만톤
연간 식용 소비량	약 400만톤	약 240만톤	약 34만톤
유사시 대응 가능 기간	2.4개월	0.1개월 (민간재고 포함시 2.5개월)	2개월

○ (민간) 주요 곡물에 대하여 '23.2월 사용물량까지 보유(계약물량 포함시 '23.3월~'23.6월) 중으로 단기적인 원료 수급에 큰 문제는 없는 상황

('22.12월 기준, 단위 : 만톤)

구분		연간 소요량	재고		계약	
			재고량	소진시점	계약물량	소진시점
식용	밀	240	61	'23.3월	52	'23.6월
	옥수수	226	48	'23.2월	27	'23.3월
	대두	100	22	'23.2월	30	'23.6월
사료용 곡물		1,200	317	'23.3월	225	'23.5월

□ (해외) 단기 대응 중심으로 중장기적인 해외 공급망 확보 노력 미흡

○ 우크라이나 사태 발생 직후 식품물가 등 국내 파급효과 최소화를 위해 금융·세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

* 할당관세 적용·물량 확대, 밀가루 가격안정 지원사업,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 등

○ 다만, 비상시를 대비하여 안정적인 해외 공급망 확보 및 수입선 다변화, 국간 간 협력 등을 위한 지원 부재

- 특히, 두 번의 식량위기('08, '11) 이후 정부 주도의 해외 공급망 확보* 및 해외농업자원개발 확대** 등을 추진하였으나 성과 부족

* '11~'13까지 aT에 750억원을 출자, 민간과 함께 곡물회사(AGC)를 설립, 미국 현지 엘리베이터 매입, 지분인수 등을 시도하였으나 실패('13.8월 청산 결정)

** 확보량(천톤) : ('10) 78 → ('14) 153 → ('16) 343 → ('18) 148 → ('20) 1,088 → ('21) 1,252

국내반입량(천톤) : ('10) 0.4 → ('14) 7 → ('16) 27 → ('18) 47 → ('20) 105 → ('21) 632

↳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, 국내 연간 수입량(약 1,700만톤) 감안시 부족

III. 최근 식량자급률 추이

-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지난('18~'22)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기본계획(이하 '농발계획') 수립시 '22년 자급률 목표 설정

< 최근('18~'21) 식량자급률 실적 및 '22년 식량자급률 목표치 >

(단위 : %)

품 목	자급률 실적				'22년 목표치 ('18~'22 농발계획)
	'18년	'19년	'20년	'21년	
식량자급률* (식용곡물)	50.3	49.3	49.3	44.4	55.4
곡물자급률* (사료용 포함)	24.1	23.3	22.4	20.9	27.3
쌀	97.3	92.1	92.9	84.6	98.3
보 리	32.1	47.7	38.2	33.5	36.6
밀	1.2	0.7	0.8	1.1	9.9
콩	25.3	26.7	30.4	23.7	45.2
옥수수	3.3	3.5	3.6	4.2	8.2
서 류	104.1	104.3	104.5	104.0	109.0

※ 쌀·콩·옥수수·서류는 n-1년 생산량, 보리·밀은 n년 생산량 기준으로 자급률 산정

* 식량자급률 : 국내에서 소비되는 식량(사료용 제외) 중 국내에서 생산되는 비율
곡물자급률 : 국내에서 소비되는 곡물(사료용 포함) 중 국내에서 생산되는 비율

- 식량자급률은 농지면적 감소 등에 따른 국내 생산 감소 영향으로 최근 5년간('17~'21) 지속 하락 추세

- (쌀) '18년 이후 생산량이 지속 감소하였으며, '20년 생산량이 급감하며 식량자급률 하락폭 확대

* 최근 쌀 생산량(만톤) : ('18) 387 ('19) 374 (20) 351 ('21) 386 (22) 376

→ 다만, '21년 이후 생산량이 회복되었으며, 향후 구조적 공급과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정 생산 유도를 위한 정책 필요

- (기타) 밀·콩 자급률 상승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보다 확대하였으나, 자급률을 상승 추세로 전환하기에 역부족

* 콩의 경우 '20년 장마 영향으로 생산량이 급감하여 일시적으로 '21년 자급률 하락

** 국산 밀/콩 관련 예산(억원): ('20) 34/895 → ('21) 173/1,658 → ('22) 242/1,702

→ 농가들이 쌀 이외 밀·콩 등 전략작물로 생산을 전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수단 발굴 필요

IV. 기본방향 및 주요 추진과제

1 기본방향

비전

외부 충격에도 굳건한 식량안보 체계 구축

주요 목표

- ◇ '27년까지 식량자급률 **전체 55.5%, 밀 8.0%, 콩 43.5%** 달성
- ◇ '27년까지 곡물 수입 중 **해외 유통망 활용 비중 18%** 달성
- * 해외 유통망 확보 목표 : ('22) 2 → ('27) 목표 5개소
- 국내 반입 목표 : ('21) 61(전체 곡물 수입의 3.5%) → ('27) 300만톤(18%)

5대 전략 및 13개 중점 과제

국내 생산 확대

전략 ① 국내 기초 식량작물 생산 확대

- ① 전문 생산단지 중심 대규모·집중 생산체계 구축
- ② 전략작물직불금 신설을 통한 농가 소득 안전망 확충
- ③ 기후변화 대응, 스마트농업·기계화 지원 등 농업 생산성 향상

전략 ② 농업진흥지역 중심 농지 관리 체계화

- ① 농지 보전목표 설정 및 중장기 농지 관리체계 구축
- ② 농업진흥지역 관리체계 개선
- ③ 농지전용허가 제도 개선

전략 ③ 국내 비축 확대 및 新수요 창출

- ① 밀·콩·가루쌀 비축 확대 및 비축시설 신규 조성 검토
- ② 국내 식량작물 소비 확대를 위한 신수요 창출
- ③ 취약계층의 기본 먹거리 보장을 위한 지원 지속

해외 공급 기반 확보

전략 ④ 민간 기업의 해외 공급망 확보 지원

- ① 민간 기업의 해외 곡물 유통망 확보
- ② 선제적인 수입선 다변화 지원

전략 ⑤ 식량안보를 위한 국가 간 협력체계 구축

- ① 식량안보 관련 국제협력 강화
- ② 공적개발원조(ODA) 및 해외농업자원개발 확대

2

‘27년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

◇ ‘27년 식량자급률 목표치는 ①식량주권 확보를 위한 정부 의지, ②새로운 정책 수단, ③품목별 정책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5.5%로 결정

* 식량자급률 목표(‘21→‘27p, %) : (전체) 44.4 → **55.5**, (밀) 1.1 → **8.0**, (콩) 23.7 → **43.5**

< 품목별 ‘27년도 목표 자급률 >

구분	전체	쌀	보리	밀	콩	옥수수	서류
목표 자급률(%)	55.5	98.0	34.6	8.0	43.5	8.2	109.5

① (정부 의지) 식량주권 확보를 위한 정책 의지를 반영, 자급률을 상승세로 전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목표치를 설정할 필요

* 식량자급률 추이(%) : (‘17)51.9 → (‘18)50.3 → (‘19)49.3 → (‘20)49.3 → (‘21)**44.4**

② (정책 수단) ‘가루쌀’, ‘전략작물직불제’ 등 자급률 제고를 위해 과거와는 차별화된 실질적인 정책 수단이 마련된 점을 감안하여 목표치 설정

* 지난 5년간 국가식량계획(‘21.9), 밀산업육성법 제정(‘20.2) 등 자급률 제고를 위한 계획은 수립되었으나, 실질적인 생산 확대를 위한 **정책 수단은 미흡**

○ 가루쌀 생산 확대를 통해 수입밀 일부 대체(‘27년까지 연 26만톤)

○ 밀·콩·서류 등 기초 식량작물의 국내 생산 확대를 위한 기존 ‘논활용직불’을 개편하여 ‘전략작물직불금’ 신설

○ 국내 밀 생산 확대에 대응한 밀 전용비축시설 신규 설치 검토

③ (품목별 정책 방향) 쌀은 적정 생산(감소), 전략작물은 생산 확대

○ (쌀) 소비량 감소(연평균 약 △2.2%) 등 변화된 소비트렌드를 감안
→ 적정생산 및 소비촉진을 통해 수급균형 달성(자급률 목표 98.0%)

* (생산) 연평균 △1.5% 감소로 설정(과거 10년 동안 연평균 0.7% 감소)
(소비) 연평균 1인당 쌀 소비량 감소 추세(△2.2%)를 감안

○ (전략작물) 높은 수입의존도로 국제곡물 수급불안 발생시 국내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하여 생산 확대를 통한 자급률 상향 도모

* 품목별 자급률 실적(‘21) 및 목표(‘27) : (밀) 1.1 → 8.0, (콩) 23.7 → 43.5 등

- 특히, 쌀 다음으로 1인당 소비량이 많은 밀·콩의 국내 생산 확대에 주력

◆ (국내) 생산 확대를 통해 식량자급률을 상승 추세로 전환

전략① [생산] 국내 기초 식량작물 생산 확대

① (생산 지원) 전문 생산단지 중심으로 대규모·집중 생산체계 구축

가루쌀	▶ 가루쌀 재배 전문 생산단지를 신규 조성하여 단계적으로 재배 확대 * 목표 생산량(천톤) : ('22)0.5 → ('26)200, 재배면적(천ha) : ('22)0.1 → ('26)42.1 * 가루쌀 전문 생산단지(개소) : ('23)39 → ('27)200 ▶ 표준 재배법 보급 및 현장 컨설팅 지원 등 재배 안정성 제고
밀	▶ 전문 생산단지 조성 확대 및 주산지 중심으로 건조·저장 시설 확충 * 전문 생산단지(ha) : ('22)7 → ('27)21, 건조·저장 시설(개소) : ('22)4 → ('27)10 ▶ 정부 보급종 공급 확대 등 국산 밀 생산·품질 향상 * 보급종 확대 계획(톤) : ('21)1,334 → ('22)1,900 → ('23)2,320
콩	▶ 전문 생산단지 조성 확대 및 배수시설 정비, 선별·저장시설, 농기계 지원 * 전문 생산단지(ha) : ('22)7 → ('27)14 ▶ 논콩 생산단지 재배기술 컨설팅 및 우수 생산단지 발굴·확산 * 우수생산단지 선발대회를 개최하여 경영·재배기술 우수사례 전국 확산

② (전략작물직불) 전략작물직불금*을 통해 농가 소득을 지원하여 가루쌀·밀·콩 등 주요 전략작물 생산에 참여하는 농가 확대 도모

* (지원내용/정부안) 동계(밀·조사료) 및 하계(콩·가루쌀) 작물 이모작 시 250만원/ha,
단작 생산 농가는 품목별로 50(밀·조사료)·100(논콩·가루쌀)만원/ha 지급

③ (생산성 향상) 농업 분야 기후대응 컨트롤타워 구축*(~'26) 및 가뭄· 홍수 등 자연재해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논·밭 기반정비 추진

*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를 설립(~'26)하여 농식품 분야 기후변화·탄소중립 등에 대응

- 스마트농업 활성화·기계화 지원 등을 통해 농업 생산성 향상

* '27년까지 농업 생산의 30% 이상을 스마트농업으로 전환 추진

전략② **(농지)** 농업진흥지역 중심 농지 관리 체계화

① (농지 관리체계 구축) 농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농지 보전목표 설정 및 중장기 농지 관리체계 구축

- 정부는 5년마다 농지 보전목표가 포함된 기본계획*을 수립하고, 지자체는 기본계획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실천계획 수립 의무화('23)

* 농지면적 변동 추이, 농업진흥지역 지정·변경·해제 현황 및 주요 원인을 분석하고, 개발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본계획 수립

- 전국 농지 소유·이용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농지대장 정비* 추진(~'24)

* 정비항목 : 소유 현황, 자경·임대차 여부 등 경작 현황, 농막 등 시설설치 여부 등

② (농업진흥지역 관리체계 개선) 농업진흥지역 관리 체계화를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농업진흥지역 지정 기준 조정

- 농업진흥지역 지정 도면과 필지 정보를 DB로 구축하고, 신규 지정·해제 등 변동 내역*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관리시스템 구축('23)

* 농업진흥지역 정보 현행화를 위해 시·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변경 시 도면 등 관련 자료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제공하도록 의무화('23, 농지법 시행령 개정)

- 농업진흥지역 지정 기준을 논·밭으로 구분하여 조정('23)

③ (농지전용허가 제도 개선) 농지전용허가 권한 위임 범위 조정 및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체계 조정 검토

- 체계적인 농지 전용 심사를 위해 허가권한 위임 범위 조정('23)

- 다른 부담금 사례 등을 고려하여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율 조정, 부과율 차등화, 수수료 지급기준 개선 등 부과체계 조정 검토('23, 연구용역)

- 도시개발, 산업단지 등 대규모 국토 개발 추진 시 심사기준 마련('23)

전략③ **(비축·소비)** 국내 식량작물 비축 확대 및 新수요 창출

① (공공비축 확대) 위기 발생시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쌀·밀·콩 등 기초 식량작물에 대한 공공비축 확대

* 국산 밀/콩 비축 목표(천톤) : ('22) 17/25 → ('25) 30/45 → ('27) 50/55

- 국내 밀 생산 확대에 대응한 밀 전용비축시설 신규 설치 검토('23~)
- 가루쌀은 쌀 공공비축제를 통해 매입하여 참여 농가의 판로 부담 경감

② (소비기반 구축) 국산 가루쌀·밀·콩 수요처에 대해 계약재배, 원료 할인공급, 신제품 개발 지원 등을 통해 新수요 창출 추진

* 쌀 가공식품 수출액 : ('21) 164백만불 → ('23) 198 → ('25) 238 → ('27) 300

가루쌀	▶ 가루쌀 이용 확산을 위한 제품개발, 소비판로 지원 등 추진 * '23년도 예산안에 '쌀가루 산업화 지원' 예산 71억원 신규 반영 ▶ 글루텐프리 등 쌀 가공식품에 특화된 식품인증 홍보·활성화 * 쌀 가공식품의 글루텐프리 국내 인증 : ('22)최초 인증 → ('27)50개 기업
밀	▶ 제빵·제과 협력사업 발굴 및 소비 활성화 캠페인 추진 * (사례) SPC삼립에서 '국산 밀 빵' 4종을 출시하여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 ▶ 대량 수요처와 계약재배 확대 및 가공·소비 확대를 위한 제분·유통비용 지원 * 맥류 계약재배(천톤) : ('22)6 → ('25)12, '밀 가공확대지원' 예산(억원) : ('22)16 → ('23안)20
콩	▶ 푸드테크(Food-tech) 산업과 연계하여 국산 콩을 활용한 대체식품 생산 기업에 원료 확보·신제품 개발 등을 지원 ▶ 계약재배 확대 및 정부 매입 콩 할인공급을 통한 신규 수요처 발굴 * 두류 계약재배(천톤) : ('22)20 → ('25)30

③ (농식품 지원사업) 취약계층에 대한 기본적인 식품 공급을 위한 농식품 바우처, 정부 쌀 할인판매 등 농식품 지원사업 지속 추진

- 저소득층 대상 농식품바우처 사업 대상 지역을 확대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및 법적근거 마련('23)
- 경제적 취약계층의 먹거리 접근성 개선을 위해 복지용 정부 쌀 공급 규모 및 할인폭 확대 등 지속 추진

◆ (해외) 민간 지원 확대 및 국제협력 등 안정적 해외 공급망 확보

전략④ [공급망 확보] 민간 기업의 해외 공급망 확보 지원

① (자금 지원) 다양한 방식으로 민간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 지원 추진

- 해외곡물 유통망* 확보를 위한 저리융자 정부 지원(500억원 사업규모/이차보전)

* 곡물 엘리베이터 등 확보 지원('22, 2개소 → '27, 목표 5개소) 지원('23~)

-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농식품 펀드* 신규 조성 도입 검토('24~)

* 정책연구과제(농금융 수행)를 통해 신규 펀드 조성 가능 여부 검토(~'23)

- 안정적인 투자 자금 조달을 위하여 식량 확보를 위한 밸류체인(value-chain) 쉼 과정에 대한 지원기반 구축(수출입은행* 협조)

*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여 「글로벌 공급망 대응 프로그램」 신설('22~, 20조원 규모) 및 포스코의 우크라이나 곡물 터미널 지분 투자시 자금 지원(현지법인사업자금대출, 36백만원)

< 사례 : 국내 기업의 해외 곡물 엘리베이터 확보 >

- ▶ 곡물을 건조·저장·분류·운송하는 유통시설을 의미하며, 주로 곡물 주산지 또는 강·항만·철도 등 운송시설 인근에 위치
- ▶ 포스코는 우크라이나 곡물터미널 확보('19), 팬오션은 미국 EGT 곡물터미널 확보('20)



② (수입선 다변화) 주요 수입국 작황부진, 수출제한조치 등에 대비하여 민간 기업의 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지원방안* 검토('24~)

* 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현지 사전조사, 운송비 차액 및 국내 도입시 보관·저장, 국내 가공 적합성 평가·제품개발 R&D 등 지원방안 도입 검토

< 사례 : 수입선 다변화 지원 사례 >

- ▶ (중앙) 중동 이외 지역(예. 미주유럽 등)에서 원유를 들여오는 경우 운송비 일부 지원(산업부)
 - * 석유사업법 제18조에 따른 수입부과금 환급
- ▶ (지자체) 관내 중소기업 대상 '대체 수입처 발굴' 및 '대체 수입 물류비' 지원 등(울주군)
 - * 대체 수입처 발굴 지원 : 전문기관 선정에 필요한 비용의 90% 지원(최대 200만원)
 - 대체 수입 물류비 지원 : 기존·신규 수입 물류비 차액의 90% 지원(최대 400만원)

전략5 [국제협력]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국가 간 협력체계 구축

① (양자·다자협력 강화) 비상시 안정적인 식량(밀·콩) 확보를 위한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양자·다자간 협력체계 구축

- 주요 곡물 수출국과 식량위기 상황에서의 상호 협력체계 마련
 - * 일본은 호주와 특정 품목에 대한 수출금지를 상호 자제하기로 합의('14년, 경제파트너십 협정체결)
- 남미 주요국과 식량안보 협정(FTA·TIPF) 체결 모색 및 민간의 중남미 곡물 유통망(수출엘리베이터) 확보 협력 등 추진
- IPEF 등 다자간 경제협력체의 식량안보·공급망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, 위기시에도 안정적인 식량 확보를 위한 국가간 협력 강화
- 아세안+3 비상 쌀 비축제(APTERR)의 범위를 밀까지 확대하여 역내 국가간 약정물량 비축 및 비상시 활용체계 구축
 - * '23년 한국 개최 예정인 제11차 애프터 위원회를 계기로 구체 방안에 대해 회원국 협의 추진

< 사례 : 아세안+3 비상 쌀 비축제(APTERR) 사례 >

- ▶ 아세안+3 국가 간에 쌀 비축물량을 사전에 약정·비축하고, 비상시 약정물량을 판매·장기차관·무상 지원하는 국제 공공비축제도('13~)

② (국제농업협력) 공적개발원조(ODA) 등 농업 관련 기술·시설·장비 등 지원을 통해 신뢰관계 구축 및 비상시 협력체계 마련

- * 대상국가(예시) : (밀)우크라이나, 세르비아, 카자흐스탄, 인도 등, (콩)브라질 등
- 공적개발원조(ODA) 규모 단계적 확대* 및 민간의 해외농업자원 개발사업 진출과 연계한 전략적인 ODA 지원** 추진
 - * ODA 사업 규모 : ('22) 849 → ('23안) 917억원(12개국, 9개 국제기구, 47개 사업)
 - ** 민간기업 진출 국가에 대해 시설·장비 투자 등을 기반으로 농업협력 기반 구축
- 해외농업개발 진출 지역을 다변화하기 위하여 핵심품목에 대한 국가별·지역별 진출·육성 전략 마련(해외농업자원개발 5개년 종합계획 수립)
 - * 해외농업개발 예산 규모 : ('22) 94 → ('23안) 110억원(보조 30, 융자 80)
- 비상시 해외에서 확보한 곡물의 국내 반입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령 개정 추진(해외농업산림법 개정, '23)
 - * (현행) 비상시 반입명령 이행으로 인한 사업자 손실을 보상하는 근거 규정 미비
→ (개정) 사업자 손실보상 근거 규정 신설(해외농업산림법 제33조)

※ 주요 곡물 수출국 및 향후 곡물 시장 성장 가능성이 높은 국가 등과 비상시 안정적 식량 확보를 위한 장기 구상 마련('23~)

연번	추진과제	주관 [협조]	일정
----	------	------------	----

◆ (국내) 생산단지 조성·농지 보전·비축 등 생산 확대 기반 구축

전략1. [생산] 국내 기초 식량작물 생산 확대

(1) 전문 생산단지 중심 대규모·집중 생산체계 구축			
①	안정적인 가루쌀 원료 공급체계 마련	농식품부	'23~
②	전문생산단지 중심 밀 생산·품질 제고	농식품부	'23~
③	안정적인 콩 생산 기반 마련	농식품부	'23~
(2) 전략작물직불금 신설을 통한 농가 소득 안전망 확충			
①	전략작물직불금 신설·확대 검토	농식품부	'23~
(3) 기후변화 대응, 스마트농업·기계화 지원 등 농업 생산성 향상			
①	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 설립	농식품부	~'26
②	자연재해 대응을 위한 논·밭 기반정비	농식품부	'23~
③	스마트농업 무인·자동화 시범단지 조성	농식품부	'23~
④	자율주행 농기계 등 농기계 보급 확대	농식품부	'23~

전략2. [농지] 농업진흥지역 중심 농지 관리 체계화

(1) 농지 보전목표 설정 및 중장기 농지 관리체계 구축			
①	농지 보전 목표 설정	농식품부	'23~
②	중장기 농지 보전계획 수립 의무화	농식품부	'23~
③	농지대장 정비	농식품부	'23~
(2) 농업진흥지역 관리체계 개선			
①	농업진흥지역 관리시스템 구축	농식품부	'23~
②	농업진흥지역 지정 기준 조정	농식품부	'23~
(3) 농지전용허가 제도 개선			
①	농지전용허가 권한 위임범위 조정	농식품부	'23~
②	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체계 조정 검토	농식품부	'23~
③	농지전용협의 시 심사기준 마련	농식품부	'23~

전략3. (비축·소비) 국내 비축 확대 및 新수요 창출

(1) 밀·콩·가루쌀 비축 확대 및 비축시설 신규 조성

①	밀·콩 공공비축 물량 확대	농식품부	'23~
②	밀 전용 비축시설 신규 설치 검토	농식품부	'23~
③	공공비축제를 통한 가루쌀 매입	농식품부	'23~

(2) 국내 식량작물 소비 확대를 위한 신수요 창출

①	쌀 소비 활성화를 위한 교육·홍보·마케팅	농식품부	'23~
②	가루쌀 산업화지원·홍보·거버넌스 구축	농식품부 (농진청)	'23~
③	국산 밀 소비체계 마련	농식품부	'23~
④	식품기업·푸드테크와 연계한 국산 콩 소비체계 마련	농식품부	'23~

(3) 취약계층의 기본 먹거리 보장을 위한 지원 지속

①	취약계층 먹거리 지원을 위한 농식품바우처 지원 지속	농식품부	'23~
②	정부 쌀 할인판매 단계적 확대	농식품부	'23~

◆ (해외) 민간 지원 확대 및 국제협력 등 안정적 해외 공급망 확보

전략4. (공급망 확보) 민간 기업의 해외 공급망 확보 지원

(1) 민간 기업의 해외 곡물 유통망 확보 및 수입선 다변화 지원

①	민간 기업 해외 곡물 유통 시설 확보 지원	농식품부 (외교부)	'23~
②	농식품펀드 신규 조성 방안 검토	농식품부	'23~
③	수출입은행과 연계한 민간 투자 확대 기반 구축	농식품부	'23~

(2) 주요 품목 수입선 다변화

①	주요 품목 수입선 다변화 지원방안 검토	농식품부	'23~
---	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	------

전략5. (국제협력)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국가 간 협력체계 구축

(1) 식량안보 관련 국제협력 강화

①	주요 수출국과 양자간 상호 협력체계 마련	농식품부	'23~
②	다자간 식량안보 관련 공조체계 강화(IPEF 참여 등)	농식품부 (외교부)	'23~
③	아세안+3 비상 쌀 비축제(APTERR) 범위 확대	농식품부	'23~

(2) 공적개발원조(ODA) 및 해외농업자원 개발 확대

①	공적개발원조(ODA) 규모 확대	농식품부	'23~
②	농업기술 분야 협력체계 구축	농식품부	'23~
③	해외농업개발 진출·육성 전략 마련	농식품부	'23~
④	반입명령 실효성 제고(해외농업산림법 개정)	농식품부	'23~